

# 신규 아파트는 건축비 인상 등 분양가 상승 요인 줄줄이 저렴한 미분양 아파트 관심 늘 듯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인한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장 규제 완화조치를 내놓고 있다. 특히 정부의 건축비 인상 등의 여파로 신규주택의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기존 주택이나 준공후 미분양 등의 '물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분양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4.4% 인상됐다.

이는 지난 3월1일 건축비 인상 이후 철근값이 다시 60% 이상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2% 인량의 분양가 인상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엔 반영되지 않은 원

자재와 철근 추가 상승분 등은 오는 9월1일 재반영할 계획이어서 불과 50여일 후면 건축비가 또 오르게 된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건설업체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어 분양가 '고공행진'에 한 몫을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인 택지비의 매입가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점에서 택지비의 매입가 인정은 분양가 인상과 직결된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분양가상한제와 미분양 적체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업체가 사실상 사업 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체의 주택사업 취소가 속출하면서 올해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건설 계획이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각종 조치로 인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끝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인 택지비와 건축비를 계속 올리면서 이르면 상한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값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신규주택의 분양가 상승 여파로 기존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새 아파트의 집값 상승은 자연적으로 기존 주택은 물론, 준공후 미분양 등 대체물량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준공후 미분양이란 공사가 끝날때까지 팔리지 않은 아파트를 말한다. 현재 광주·전남에는 4천200가구에 달하는 준공후 미분양이 있다.

준공후 미분양은 분양가가 2~3년 전 가격인 데다 견본주택이 아닌 실제 아파트를 보고 계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분양가의 경우 광주의 준공후 미분양은 3.3㎡당 500만원대 초반으로 최근 광주의 평균 분양가(760만원)보다 35% 가량 낮게 형성돼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 백화점 올 여름 세일 불황 속에도 매출 늘었다

### 지난해보다 신세계 11%·롯데 6% 증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여름 정기세일(6월27일~7월23일)에서 나름대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일에서 광주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1%, 6%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세일기간이 지난해보다 5일 늘어난 것도 있지만, 무더위로 인한 바캉스 관련상품과 냉방용품 판매가 매

출신장에 기여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신세계의 경우 본격적인 바캉스철을 앞두고 아웃도어 30%, 여성복 21%, 아동의류 34%, 골프의류 16% 등 판매가 늘어났다.

자외선 차단제나 기초 화장품 등은 37% 증가했으며 선글라스 46%, 양산 33%, 모자 56%, 액세서리 28%, 핸드백 26% 등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롯데광주점에서도 선글라스·양산·모자 등 자외선 차단상품들의 매출이 최고 30% 이상 신장했고, 짐통더위로 인해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비롯해 계절에 맞게 멋을 낼 수 있는 색조화장품, 남성 전용 화장품의 매출도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어컨은 전년 대비 35%에 육박하는 신장률을 보였고 아웃도어 및 바캉스 관련 레저용품의 매출도 20% 이상 늘어났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향토기업 제품 사줍시다”

### 3개 기업 동호인 음악 캠페인

기아차 광주공장, 보해양조, 오비맥주 등 광주를 대표하는 3개 기업 음악동호인들이 콘서트를 통해 지역 제품 사주기에 앞장섰다.

이들 동호인들은 지난 13일 광주고속터미널 유스퀘어 광장에서 ‘우리지역기업 직장인 음악동호회 콘서트’를 열고, 록·댄스음악, 포크송,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특히 연주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이 지역제품을 사줘야 지역경제가 발전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우리지역기업 직장인 음악동호회’는 기아차 광주



광장의 ‘봉고봉고’를 중심으로 보해양조와 오비맥주 연합팀인 ‘광주 윈드앙상블’로 지난 5월초 결성됐다. ‘우리지역기업 직장인 음악동호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기업 직장인들의 참여범위를 확대, 광주를 대표하는 직장인 음악동호회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농가 영농·가사 도우미 확대 호응

### 농협전남본부 올 사업비 4억5천만원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542농가에서 1천9농가로 크게 늘어난 반면 가사도우미의 경우 다가가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특히 가사생활이 어려운 농가를 선정, 지원한 탓에 1천897농가에서 1천336농가로 줄었다.

이와 함께 전남본부는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8일 지역농협별 가사도우미대표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 ‘노인건강’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다목적구급관 약품상자를 지원했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영농도우미 지원사수가 2주 이상 일원한 질병까지 확대돼 지원폭을 넓혔다”면서 “영농과 가사도우미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관내 지역농협 여성복지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광주세관장에 이재흥씨



관세청은 16일자로 이재흥(54) 구미세관장을 광주본부세관장에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음성 출신인 신임 이 광주세관장은 청주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76년 7급공채로 관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서울세관 수입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서울세관 심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김두기 광주세관장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 골프클럽 피팅 창업스쿨 연다

### 중기청 8월 4~8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준근)은 오는 8월 4~8일 지방청 3층 별관 세미나실과 강당에서 남부대·조선이공대와 함께 ‘지역 골프산업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골프클럽 피팅 창업스쿨’을 갖는다.

수강대상은 피팅 관련 예비창업자, 골프클럽 수리 제조업종사자, 골프숍 등 골프 피팅관련 창업이나 영업영역 확대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진행을 위해 수강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골프클럽 수리 및 피팅 ▲피팅장비비하 ▲골프스윙이론 피팅 접목 ▲피팅실습 ▲골프그립 및 샤프트 피팅 ▲헤드 재질 및 디자인 ▲소상공인창업자금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360-9204.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근로장려세제 홍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 직원들이 14일 상무지구 롯데마트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의 빈곤 탈출을 위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광주국세청 제공)

## 비수기 등유 소비 급증 이유 있었네

### 난방용을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 잇따라

비수기에 등유 소비가 급증한 까닭은 최근 경유값 폭등에 난방용 등유를 수송용 ‘유사 경유’로 전용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단속결과가 나왔다.

14일 정유업계와 석유품질관리원

터 31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 단속에서 2곳을 적발한 것과 견줘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등유 소비는 난방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5월 등유 소비량은 보일러 등유와 실내등유를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3.8%, 47.4%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소비량도 각각 34.3%, 10.7% 늘었다.

/연합뉴스

# 장기-게

www.kjg.co.kr

NAVER

무안++장사(장가게) 직항

매주 일,목 7회 편성 ₩ 649,000-

7/27, 7/31, 8/3, 8/7, 8/10, 8/14, 8/17 출발

특별한 고품격! 가격은 다운!

GOLF 4명부터 출발가 ₩ 899,000-

문의: 228-6070